

문 2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써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답 22: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 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성경적 근거: 요한복음 1:14; 히브리서 2:14-16, 4:15, 7:26, 10:14; 마태복음 26:38; 누가복음 1:27, 31-42; 갈라디아서 4:4; 누가복음 2:5

질문 1: 그리스도의 두 가지 속성은 무엇인가?

질문 2: 그리스도의 속성은 어느 정도로 완벽한 것인가?

질문 3: 그리스도의 두 가지 속성중 한 가지를 빼고도 구속주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질문 4: 그리스도의 두 가지 속성중 하나가 좀 부족하다고 문제가 있는 것인가?

질문 5: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나?

질문 6: 하나님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질문 7: 그리스도께서 참 몸과 지각있는 영혼을 취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질문 8: 그리스도는 누구의 권능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인가?

질문 9: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몸에서 태어난 것인가?

질문 10: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중요한 것인가?

질문 11: 동정녀 마리아는 죄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질문 12: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과 죄가 없으신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질문 13: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것은 중요한 것인가? 왜?

질문 14: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설명:

죄인들에게는 특별한 구속주가 필요했다. 구속주가 이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충분히 만족시킬수 있어야 했다. 이런 구속주를 어디에서 찾을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미 배워 알듯이 인류는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하며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만한 자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다 영원한 멸망을 체험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배웠다. 하나님의 지혜는 최고의 목적을 최고의 방법으로 이뤄가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속주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인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오심을 통해서 그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 그래서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이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한결같이 완벽하다. 그리고 완벽해야만 된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자 하나님으로써 조금도 손색이 없으시다. 그는 눈에 보이며,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입김과 체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무한했다. 그는 자연을 다스렸고, 죽은자를 살리셨고, 병든자를 고치셨다. 그는 악한 영을 다스렸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창조주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완벽한 하나님이 되시면서 또 완벽한 사람이 되신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배고프고, 목마르며, 지치기도 했으며, 맛 있는 음식을 늘 즐겨 먹기도 하셨다. 때로는 웃으시고, 때로는 우시기도 하셨다. 그의 몸에는 붉은 피가 흘렀고, 그의 몸에서는 숨 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또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도 많이 당하셨으며, 마귀와 죄의 시험도 끝없이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한번도 자신을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그리고 마귀와 죄의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는 죄를 짓지않았다. 그는 신성을 갖었으나 그 신성으로 시험을 이기지 않으시고 그의 인성의 완벽함과 거룩함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내셨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중 하나만으로는 우리를 구속할수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 또는 인성을 공경했다. 그러나 그 공경은 오직 자신들의 생각을 만족시키려는 노력밖에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 할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써만 가능하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육체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온것을 말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이 아들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성자가 성부로 부터 나왔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첫째,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을 말해준다. 둘째, 성부와 성자와의 법적인 관계 즉, 상속자의 관계를 말해준다. 셋째,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보다 높은신 분이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 누가복음 1 장 46-55 절까지를 읽어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알았다. 그러나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성화하여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를 예수님보다 더 숭배하는 아주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육신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가 잉태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도 헛된것이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완벽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닐 때에만 진정한 구속주의 역할을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 부부의 결합, 사람의 정과 뜻에 의해 이뤄진 생명이 아닌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탄생하셨다면 그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죄인이 구속주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잘못이해 하고 있을 수 도 있다. 캐톨릭에서는 동정녀를 예수님보다 더 칭송하는 것은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터무니 없이 마리아는 남편되는 요셉과 단 한번도 성적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1 장 25 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이 말은 그 후에 동침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만약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7 장 3-5 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부부사이에 요구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죄가 없이 태어난 것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렇다기 보다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며 기적적인 탄생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면서 예수가 죄없이 태어났음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답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죄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만약 사람의 의지로 남녀의 정욕에 따라 태어났다면 그는 죄인으로써 다른 죄인들의 죄를 대신지고 갈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구속주가 완벽한 신성과 인성을 갖춰야 되는것은 그가 이뤄야 될 일이 이 두가지의 속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는 무한하다. 그러므로 그 무한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 뿐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피를 흘리는 제사를 요구했다. 그런데 동물들의 제사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었다.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제사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벽한 사람으로 오셔야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8 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8-1. 하나님의 정하신 중보자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물의 상속자,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로 선택하시고 정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는 영원 전부터 그에게 한 백성을 그의 씨로 주셔서,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게 하셨다.

8-2. 이성 일인격(二性一人格)

삼위일체(三位一體, Trinity)에서 두번째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비록 아버지와 한 본질을 가지시며 동등하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지만, 때가 왔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의 본질을 가지고 잉태되시므로 사람의 본질과 그 모든 필수적 특성들과 공통적 연약성들을, 그러나 죄는 없이, 취하셨다. 그래서 두 개의 전체적이며 완전하며 구별된 본질들 곧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 변질이나 혼합이나 혼란이 없이 한 인격 안에 나눌 수 없이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지요 참 사람, 그러나 한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8-3. 신성의 필요성

주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신성에 연합된 그의 인성에 있어서 한량없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기름부음을 받으셨으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으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가 거룩하며 해가 없고 더러워지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므로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철저히 준비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그 직분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 안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그에게 주신 그의 아버지에 의하여 그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8-4.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주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아주 기꺼이 맡으셨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율법 아래 처하셨으며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고; 그의 영혼으로 직접 지극히 슬픈 고통들과 그의 몸으로 지극히 아픈

고난들을 견디셨고;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며 죽으셨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셨으나 썩지는 않으셨다. 그는 제삼일에 고난 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또한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그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중보의 일을 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오실 것이다.

8-5. 속죄 사역

주 예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신 그의 완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해 그의 아버지의 의(義)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고, 화복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기업도 사셨다.

8-6. 구약 시대에도 적용됨

비록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成肉身)하시기 전까지는 그에 의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의 덕과 효력과 혜택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씨 그리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 곧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계시되고 상징된 약속들과 모형들과 제사들에서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세상의 시초로부터 모든 시대들에 계속적으로 택자(擇者)들에게 전달되었다.

8-7. 신인적(神人的) 활동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서 각 성(性)이 그 자체에 고유적인 것을 함으로써 그의 양성(兩性, 신성과 인성) 모두에 따라 행동하시지만; 그 인격의 단일성 때문에, 한 성에 고유적인 것이 때때로 성경에서 다른 성을 나타내는 명칭에 의해 그 인격에 돌려진다.

8-8. 속죄 사역의 효력 있는 적용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구속(救贖)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의 구속을 확실히 그리고 효력 있게 적용하시며 전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의 일을 하시고; 구원의 신비들을 말씀에서 그리고 말씀에 의해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효력있게 설득하셔서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에 의해, 그의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맞는 방식들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신다.
